

전남교육청, 인문학 강좌 성료

학부모 대상, 자발적 참여와 열기 속 마무리 장석웅 교육감 “혁신 위해 창의적 제안 필요”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부모의 공공성과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해 추진한 '2019년 학부모 찾아가는 인성교육 인문학 강좌'가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가 기획, 홍보, 사회, 진행, 환류까지 주체적으로 나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로써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세 차례 강좌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9일 저녁 7시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강연에는 2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워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남 학부모회 네트워크 공동부 진행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는데, 학부모가 공기관 행사의 사회를 보는 모습에서 신선함이 느껴졌다.

강의는 이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배타인지를 이해하면 학습과 지혜가 보인다'라는 주

제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타성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협력과 박상머리교육의 중요성, 교사에 대한 존중 등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강의에 앞서 식전 공연은 해남 카나리아 플라 앙상블 학부모 동아리가 재능기부를 해주었다. 앙코르 공연에서는 어린 자녀가 깜짝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석웅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학교를 혁신하고, 교실을 혁신해서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열정과 새로운 관점으로 창의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지난 11월 18일 꿈꾸는 지구 김수영 대표를 초청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가 열렸으며, 11월 28일에는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을 초청해 ‘해시태그 유아라이프’라는 주제의 강의가 펼쳐졌다.

허성은 기자

광주교육청, 학교 공모사업 통합 누리집 개설 ‘업무 간소화’

공모사업 진행 시, 공문 없이 공모 진행해 간소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대상 공모사업을 종합(One-Stop) 처리해 행정업무 간소화고자 통합 공모 누리집을 오는 16일 개설한다.

새로운 학교 공모사업 누리집 (<http://contest.gen.go.kr/>)은 지원업무(서비스) 소개, 공모사업, 일람마당으로 구성됐으며 공모사업 부분은 학교 대상공모사업, 교직원대상공모사업, 우리학

교현황으로 구분돼 있다.

공모사업 누리집에선 각급 학교가 학교별 계정 접속(로그인)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 공모사업 담당자도 별도 공문 시행 없이 공모를 진행함으로써 절차가 축소돼 업무가 효율화되었다.

그동안 교육청 공모사업은 시교육청 각 과와 직속기관 등에서

공모계획을 전체학교에 안내하고 선정함으로써 학교 공문서과다 발생과 교육청 담당자의 업무과중 등으로 현장에서부터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가 요구돼 왔다.

시교육청 정책기획과 현석룡 과장은 “이번 교육청 공모사업 누리집 개설을 통해 학교는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근무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고 교육청의 행정업무도 효율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인호 기자

순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예비 학부모 준비 끝

현장 사례 위주로 학부모의 이해 도와

순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순천 관내 예비 초등학교와 예비 중학교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회에 걸쳐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예비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예비학부모교육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 준비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예비학부모에게 는 입학전 준비할 내용, 초등교육

과정,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안전한 학교생활로 구성되었고 중학교는 시중 초·중학교 학부모 되기, 과 정중심평가, 자유학기제 이해, 학교폭력 이해, 우리아이 생활지도 등 현장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 오화선(황전초) 교감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동차의 바퀴처럼 교육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믿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기를 바란다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이고, 부모의 행동이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학부모도 자각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순천신흥초병설 유치원 학부모는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돌보는 법과 방향을 안내해 주셔서 좋았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서 입학 전 불안감과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다며 많은 학부모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꼭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순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부모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Wee센터, 행복한 유종의 미 거두다”



강진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10일 샘-품 & 맘-품지원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샘-품 & 맘-품지원단 결과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2019. 샘-품 & 맘-품지원단은 5월 17일 멘토단 위촉장 수여 및 사업설명으로 시작해 이 달 결과 협의회를 끝으로 올해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멘토단은 교사5명, 학부모 6명으로 이루어져 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1혹은 1:2 매치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에 정성을 쏟았다.

이 날 결과 협의회를 통해 그 간의 멘토링 활동을 되돌아보며 프로그램 성과 나눔 및 우수사례 공유와 향후 2020년도 샘-품 & 맘-품지원단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샘-품 & 맘-품지원단원들

은 “샘-품 & 맘-품지원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안에서만 지켜왔던 모습 이외에 학교밖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관찰하고 볼 수 있어 좋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밝게 적응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대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샘-품지원단은 2015년도 꿈키움 멘토단이란 명칭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 학업 중단 위기 경험이 있는 성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을 멘토로 위촉하여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과 결연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이다.

맘-품지원단 활동을 지원하는 강진 '후원의집'도 배려대상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9개 업소가 신청해 운영되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양교육청, 아버지 수업 아카데미 성료



광양교육청은 지난 10일 ‘공감하는 아빠! 행복한 아이!!’라는 주제로 ‘2019 유아와 함께하는 아버지 아카데미 수료식’을 실시하였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학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2019 유아와 함께하는 아버지 아카데미’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월1회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5개월의 발자취인 활동 영상을 보며 깊은 감

동을 받고 그동안 참여했던 강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또한 업무가 직접 문구를 작성하고 제작한 수료패를 수여하는 등 은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수료식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아카데미에 5회 모두 참석한 광양중마유치원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한 지난 5개월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카데미에 참여 하면서 아이와 좀 더 가까워졌고 아이를 이해하며 공감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수료식까지 깊은 애정을 보내준 조정교 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주신 아버지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아카데미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시대의 아버지 ‘상’에 한발자국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